



학교에 대한 믿음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재밌는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배웠어요.” (6학년 이예림)

“내년에도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6학년 이정근)

학교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담뿍 담긴 말이 학생들의 입에서 흘러나온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진 시대에 교의 의미를 교육 주체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고도 할 수 있겠다. 어떤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일까.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작은 학교가 가진 특성이다 장점 중 하나.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연계 활동에 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안내초등학교다. 안내초등학교는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시절부터 행복씨앗학교로 정된 지금까지 활발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안내면에 있는 체험마을인 했다래권역과 MOU를 체결하고 계절에 따른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을여행, 마을 교과서 제작 등의 연계 활동이 매년 이어지고 있는 것. 안내면 특산물인 감자 수확철에는 학생들이 직접 감자를 캐고 감자 요리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나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벽화 그리기, 숲 체험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안내초는 이런 활동이 앞서 소개된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현재 38명의 전교생을 꾸준히 유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안내초 정유호 교사는 “학교 활동에 학생뿐 아니라 주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면서 역사회의 학교에 대한 애착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안내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한 감소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이 활동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보람 교사는 “귀촌할 곳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안내초등학교를 보고 안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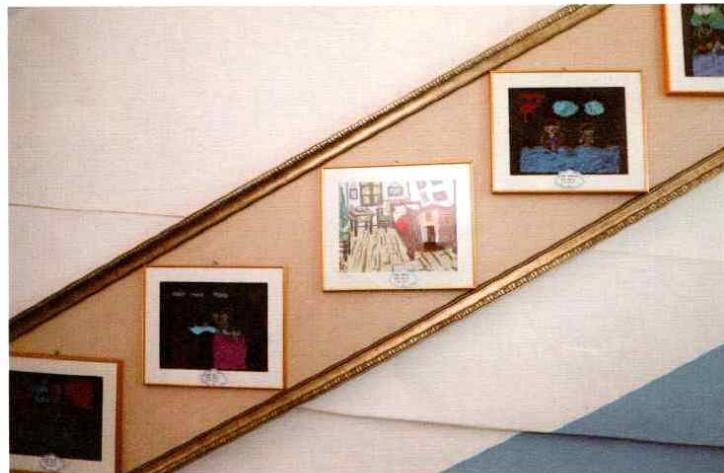
로 오게 됐다는 학부모들도 계신다”고도 설명했다. 올해는 옥천읍에서 안내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생겼고, 안내면에 거주하며 읍으로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안내초로 옮기기도 했다. 추석 연휴 후에는 세종시에서 이주해온 유치원생 두 명이 더 등교하게 된다는 것도 학교로서는 반가운 소식

김영임 교장은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소수라도 학생이 늘고 학교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평소 학사 일정이 아니더라도 지역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김 교장은 “학교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가 곧 지역사회의 학교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왔다”며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라는 가장 큰 조력자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평가는 학부모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온다. 이전에는 ‘섬’으로만 존재하던 학교가 이제는 ‘우리 학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 안내초 학교운영위원장장을 맡은 학부모 이요셉 씨는 “마을이 고령화되다 보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래서 학교의 존재를 잊고 사는 주민이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학교가 마을과 연계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도 학교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

게 됐고 이제는 학교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함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다. 안내면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비를 스마트칠판 지원 등 안내초 시설비 투자로 사용하게 된 것, 안내면 거점 사업으로 도서관 및 돌봄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이 그 예다.

학부모들은 이제 안내면으로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인, 그 중에서도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별도의 거주 공간을 꾸려 지원하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요셉 학교운영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교육 여건이 있어도 주거 공간이 마땅치 않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관사 부지를 활용해 마을이나 옥천군에서 건물을 지어 무상 임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도 교육감에게 질의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민들이 공모 사업을 따내든 군에서 추진을 하든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의 경우 도와 교육청이 협조해서 빙집 수리 및 임대주택 제공 등으로 농촌 학교 살리기를 한다는데 지방소멸 대상지로 여러 곳이 거론되는 충북의 경우 이런 정책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작은 학교 살리기는 지역사회, 교육 기관, 지자체가 함께 가야 하는 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더 탄탄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작은 학교가 미래다

작은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관계자들은 학교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은다. 그러나 몇 년 째 이 이야기가 되풀이되고만 있다는 것은, 이렇다 할 정책적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실 이 같은 '작은 학교'는 팬데믹 시대에 더욱 적합한 학교 형태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확인되고 있다.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꼭 감염병이 니더라도 개인 맞춤형 교육 등 앞으로의 학교 현장이 지향해야 할 형태라는 점에서도 작은 학교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안남초 3학년 담임 이영미 교사는 "교실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큰 학교는 학생이 많아 다양한 활용이 어렵지만 작은 교는 한 교실을 여러 구획으로 나눠 요모조모 사용할 수 있고, 요즘 같은 때엔 적절히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점"이라며 "같은 크기의 공간이라도 작은 학교에서는 학생 당 허락되는 공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 안에서도 의사 결정을 할 때 학생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반영할 수 있다는 것도 작은 학교가 가지는 강점이다"고 말했다.

학부모 임해란 씨는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손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심이 많았지만 안남초는 작은 학교였기에 이런 부분을 메울 수 있었다고 본다"며 "특히 학원 등 사교육에 기댈 수 없는 인면 같은 경우 학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학교에 가 또래 친구를 만나고 함께 어울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것도 작은 학교였기에 가능했고, 여기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내초 김영임 교장은 코로나19로 면 지역 작은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후에 우리 교육의 대안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면 지역 행복씨앗학교로 공동학구제인 안내초의 경우 실제로 읍 지역 학부모들의 통학 문으



있기도 했다는 것. 김영임 교장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니 작은 학교로 눈길을 주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거 같다”며 “생태교육, 전인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작은 학교의 교육적 강점이 분명하다. 교통이나 거주 문제가 해결된다면 분명 작은 학교 활성화의 대안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코로나19로 작은 학교가 대안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논해야 할 것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작은 학교 한 관계자는 “학급 당 적정 학생 수를 비롯해 교육 과정, 특성화, 돌봄 등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며 “작은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까지 ‘경제성’, ‘효율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야 할 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관심”이라며 “학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지역의 협조가 필요하다. 작은 학교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 사진 박누리 디자인 신윤아

